

명품 '프라다' 신발 한짝 남기고 2분만에 사라져

최순실 검찰 출두 표정

지난 31일 오후 '비선실세' 의혹의 장본인 최순실 씨가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오후 2시 58분께 검은색 에쿠스 승용차에서 내린 최씨는 두꺼운 코트에 방퍼지 모자를 쓰고, 목에는 점박이 문양의 목도리를 두른 채 나타났다.

검찰청사 앞을 빠르게 지나가던 최씨를 비교적 빠른 걸음으로 지나간 최씨는 검은 뽀빠이 안경에 한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최대한 얼굴을 가리려 애썼다.

당초 취재진은 검찰·변호인과 협의해 최씨의 안전이 보장되는 가운데 국민 앞에 최씨 스스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는 발언을 듣기 위한 '포토라인 문답'을 갖기로 한 상태였다.

그러나 취재진 사이사이로 자리를 잡고 있던 일부 시위대가 한꺼번에 피켓을 펼치고 쏟아져 나와 "최순실 구속 박근혜 하야"를 외치면서 포토라인도 무너졌다.

최씨는 황급히 주변의 도움을 받아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차에서 내린 지 약 2분 만이다. 최씨는 쏟아지는 플래시와 질문 세례에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라고 짧막하게 답했다. 이어 청사 엘리베이터 앞에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다시 한 번 입을 열었다.

최씨가 검찰에 출석하며 신은 신발도 명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 검찰 출석 당시 위대와 취재진이 엉겨 포토라인이 무너졌고 이 와중에 최씨의 신발 한짝이 벗겨졌다.

소박해 보이는 검은색 단화이지만 바닥 부분에는 명품 브랜드 프라다 로고가 선명하다. 작년 봄·여름 제품으로 당시 매장 관

취재진·시위대 몰려 아수라장

예정된 '포토라인 문답' 못해

검찰 긴급체포 신병 확보 검토



최순실의 72만원짜리 '프라다' 신발

매가 가격은 72만원이었고 현재는 단종됐다.

최씨가 청사에 들어가고 약 20분 뒤에는 '시내검찰 해제하라'고 적힌 손피켓을 든 중년 남성이 "최순실 안 잡고 시간 끈 이유가 뭐냐"고 격렬히 항의하며 오물통을 들고 청사에 난입하려다 보안 요원에 제지당했다.

한편 검찰은 최씨를 이른 시간 내에 긴급체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3시에 출석한 최씨를 상대로 4시간 넘게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개인 회사를 통한 기금 횡령·유용, 청와대 문서 유출 등 국정농단 등의 의혹 전반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

최씨는 각 의혹을 둘러싼 본인의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만 관련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난 데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귀가시키지 않고 바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지난 31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경재 변호사 취재진 따돌리고 다른 변호사와 시내 호텔에서 수사 준비

입국서 출두...31시간 행적

지난 31일 오후 '비선 실세' 의혹의 장본인 최순실(60) 씨가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언론과 취재진이 벌인 31시간 '숨바꼭질'도 끝났다. 전날 오전 7시 35분께 브리티시어웨이가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최씨의 행적은 그가 검찰에 나타나기까지 오리무중이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출두한 후 기자들을 만나 "어제(30일) 자택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서울 시내)

호텔에서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최씨는 입국 후 고급호텔 중 한 곳으로 향했을 것으로 보인다.

고개 투숙정보 보안에 철저한 데다 사람들의 눈이 잘 띄지 않는 외진 곳을 골라 국내 측근들이 준비해뒀다면 특별히 지체되는 시간 없이 곧장 여독을 풀 수 있기 때문이다.

최씨 입국 후 이 변호사가 경기도 청평으로 향하면서 최씨가 청평 주변의 고급 별장에 머무르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러나 최씨가 서울 시내의 호텔에 머무는 게 사실이라면 이 변호사는 기자들을 따돌리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장소가 어디가 됐든 조용한 곳에서 30시간 남짓 머무를 수 있었던 만큼 최씨는 검찰에 출두했을 때 어떻게 조사에 응할지를 비교적 차분히 준비했을 가능성이 크다.

최씨가 검찰에 출두한 뒤 이 변호사는 "조사가 계속 이뤄질 것인 만큼 현재는 다른 로펌 소속 변호사가 입회해 변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이 변호사가 취재진을 끌고 청평

과 서울 옥수동 자택을 오가는 동안에도 다른 변호사들이 최씨와 함께 검찰 수사 대비책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와중에도 최씨의 외부 노출을 우려한 이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나 최씨 측근과 전화 통화로 검찰 출두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에도 이 변호사는 강남 사무실에 머물러 전화로만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한편 검찰에 나가면 긴급체포될 가능성도 있었던 만큼 변호사들과 검찰 출두 전 막판까지 계속 대책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 주된 의혹 및 적용 혐의

미르·K스포츠 재단 불법 설립 및 기금 유용 최 씨, 한국·독일 법인 더블루K, 비데 등을 통한 재단 기금 유용 횡령·배임 탈세	청와대 문건 유용 의혹 태블릿 PC에 담긴 문서 초안 등 청와대 문건 유용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무원 비밀누설(공범)	말 정유라씨 관련 의혹 말 정 씨 명의의 독일 주택 (시가 4억원 이상) 소유 외국환관리법 위반 증여세 탈루
재단 기금 유용시 정당한 승인 없이 기금 오용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박 대통령의 옷 관련 의상실 비품 지출 여부 공공 유용 뇌물 공여 등	정 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확인 시 학사관리 방해
독일 등에 자금(외화)을 불법적으로 배분한 정황 확인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 씨 지도교수에게 폭언 및 협박 등 모욕·협박	

교육부 이화여대 '특혜 의혹' 특별감사 시작...정유라 입학 취소될까

문제 드러나면 승마선수 생명 마감·이대 신입생 모집 불이익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및 학사관리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지난 31일 이대에 대한 특별 감사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2주간 감사요원 12명을 투입해 정 씨를 둘러싼 의혹과 이대의 체육 특기자 입시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감사한다.

교육부는 감사에서 이대가 2015년도

체육특기생 대상 종목을 늘리면서 승마를 포함한 점, 입학과정에서 입학처장이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말한 점, 원서마감일 이후에 획득한 금메달이 서류평가에 반영됐다던 점 등 정 씨의 특혜입학 의혹과 관련한 사항을 살필 계획이다.

또 이대가 올해 1학기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학생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

으로 인정하도록 학칙을 개정한 것이 정 씨를 위한 조치였는지 여부, 정씨가 리프트 등을 제대로 내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받은 점도 감사 대상이다.

감사에서 정 씨의 입학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정 씨의 입학은 취소될 수도 있다. 또 입학비리를 주도한 지도자와 학생 선수는 영구 제명대 스포츠계에서 사실상 퇴출하도록 했다. 정 씨의 입학비리가 확인될 경우 승마 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날 수 있는 셈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이대에 대해서는 이른바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때 일부 모집 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대가 올해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9개 중 8개에 선정된 것을 두고도 최순실씨 모녀와 관련된 '특혜'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부분에 대한 감사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최순실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의) 딸 정유라는 당분간 입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 비행기보다 오래 타는 버스는 이제 그만~! 이제부터 무안에서 편안하게 떠나세요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추천1. 무안-일본(기타큐슈, 오사카/북해도) 직항 전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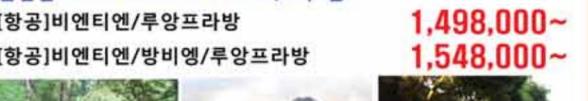
★ 무안공항출발! 초특가 규슈여행 ★
548,000원부터~
 출발일 : 2016.12.16~2017.2.26/3박4일 ※설연휴 별도문의
 [통격]기타큐슈 야마구치/미야지마 **838,000~**
 [통격]남큐슈 미야자키/가고시마 **998,000~**

출발일 : 2017.1.27~2017.2.5/3박4일(단 4회) ※설연휴 별도문의
 [통격]오사카/나라/교토/고베 **1,168,000~**
 [고품격]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1,298,000~**
 [고품격]★오사카/북해도 설국의나라★ **1,498,000~**
 광주⇄무안 왕복 버스 선착순 40명(2017년 1월 12일까지)



추천2. 무안-라오스 직항 전세기

뉴룩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가고싶은 곳 1위!!
1,398,000원부터~
 출발일 : 2016.12.28~2017.1.21/3박5일
 [항공]베트남/루앙프라방 **1,498,000~**
 [항공]베트남/방비엥/루앙프라방 **1,548,000~**



출발일 : 2017.1.27~2017.2.5/3박4일(단 4회) ※설연휴 별도문의
 [관광]다낭/호이안/후에 **1,149,000~**
 [골프]다낭 골프 54홀 **1,649,000~**
 ※공통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TAX, 전일정식사, 관광지 입장료, 숙소, 여행자보험, 기사 및 가이드팀
 ※공통불포함사항 : 여권 및 개인비용(골프상품만 클럽 중식 불포함)



추천4. 무안-대만 직항 전세기

출발일 : 2016.12.7~2017.2.26/3박5일
 [실속]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699,000~**
 [통격]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799,000~**
 [실속]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899,000~**
 [통격]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999,000~**

<일본 전세기 특전>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 A320-200 / 좌석 : 150석
 ★한별제품★
 한별에비뉴 고급 여행가방 증정!
 (4인 가족 기준 1개 증정)
 ※실속 상품은 제외



★항공특가(항공권편도) 선착순 5명★
 무안⇄기타큐슈 : 편도 79,000원부터~
 무안⇄오사카 : 편도 98,000원부터~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보험료 가입(해외상품:1억원 국내상품:5천만원) 관광진흥기금기공 공방 및 부부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전차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율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권리 가입업체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결제방법:현금,카드,계좌입금,신용카드,각종 비회비불도 ●최소 출발인원 : 상용에 따라 다름
 이롭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